

TV 2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40 갈데까지 가보자(재)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5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 <복종의 여자>	30 KBC 모닝와이드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40 지구촌 뉴스	03 MBC 9사 공동기획 <시대의 벽을 넘은 여성>	25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청담동 스캔들>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00 TV소셜(일편단심 만들러) 40 1박2일	30 아빠 어디가?스페셜	10 성탄특집 힐링캠프 스페셜 <선정해영 부부>
20 시사 인사이드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성탄특집 클래식 캐롤을 만나다(재)			50 닥터 365 55 세상발견 유레카
30 나는 몸신이다(재)			20 주말특별기획 <전설의 마녀>(재)	55 SBS 뉴스
40 채널A 뉴스특보	00 KBS 뉴스 12 10 특선영화 <넋따 땅콩도둑들>			05 가요대전 스페셜
40 김부정의 뉴스통	35 성탄특집 <천상의 영마>	30 월화드라마 <일리 돌아보기>	35 MBC 뉴스 45 나 혼자 산다 스페셜	45 정글의 법칙(재)
50 직인직설	35 VJ특공대 스페셜			
	00 누가누가 잘한 60주년 특집 시골백적 동창회		00 우리 결혼했어요 스페셜	10 SBS 뉴스 20 크리스마스 에디션 <피노키오 인 러브>
00 독한인생 서민갑부(재)	10 성탄특선 앙코르 <죽음보다 강한 사랑 손아래>	00 성탄기획 인간의 조건 스페셜	30 무한도전 스페셜	
00 여변호사가 말한다 <여자 스페셜>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10 2014 대한민국 연예계		35 성탄특집 K팝스타4 스페셜
0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30 생생 정보통	00 MBC 뉴스 10 생방송 빛날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 뉴스7 30 한국인의 밥상	50 일일 드라마 <달콤한 비밀>	15 일일연속극 <소원을 말해봐> 55 MBC 뉴스데스크	20 일일드라마 <달려라 장미>
20 내조의여왕(재)	25 일일연속극 <당신만이 내사랑>	30 생생 정보통 플러스 50 크리스마스 특집 <미녀와 야수(피일렛)>	55 MBC 일일특별기획 <압구정 백야>	00 SBS8 뉴스 35 KBC 8 뉴스 55 송년특집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성탄특집 다큐멘터리 <교황 프란치스코 선물> 55 TV총화 별간자전거 스페셜	00 수목 드라마 <왕의 얼굴>	00 수목미니시리즈 <미스터 백>	00 드라마 스페셜 <피노키오>
00 실화극장 그날(재)	00 KBS 뉴스라인 40 성탄기획 KBS 중계식 <파리나무신자가 소년 합창단 특별초청공연>	10 해피 투게더	15 헬로 이방인	15 성탄특집 자기야
20 카톡쇼 S ①:30 채널A 일요기획(재)	①:10 생활의 발견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55 겨울이제 시작으로 ①:45 한국인의 밥상(재)	35 앙코르 MBC 다큐스페셜 <다섯날치 god의 귀환> ①:35 우리기락 우리문화 스페셜	35 나이트 라인 55 2014 연말특집 KBC 열린드론회

“표정부터 앵글까지 연기 제대로 배웠죠”

영화 ‘기술자들’ 지혁 역 김우빈

“(배우 김영철의) 눈을 보는 자체, 연기하는 것을 보는 자체가 공부였어요. 막내 입장에서 배우는 마음으로 찍었기 때문에 좋은 공부를 했고, 그래서 더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반항기 가득한 고등학생의 이미지는 어디 가고, 문는 말마다 ‘모범생’ 같은 진중한 답변만 내놨다. 영화 ‘기술자들’의 주연을 맡은 배우 김우빈(25)의 얘기다. 김우빈은 김홍선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 ‘기술자들’에서 명석한 두뇌를 가진 금고털이범 ‘지혁’ 역을 맡아 김영철, 고창석 등과 함께 연기했다. 영화를 끌고 가는 역할인 만큼 부담도 적지 않았을 터.

영화 개봉(24일)을 앞두고 최근 삼정동 카페에서 만난 김우빈은 “‘기술자들’은 제게 속직과 과외 같은 영화”라며 “배우는 마음으로 편하게 하면 좋은 작업으로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담감을 스스로 떨쳐내려고 많이 노력했다”고 말했다.

매번 작품에 들어가기 전 자신이 맡은 인물에 대해 100문 100답을 한다는 그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지혁을 놓고 100개의 질문을 만들고 답하며 지혁이라는 인물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했다.

“처음 연기를 배울 때 숙제로 시작한 건데 그런 작업을 하면서 어느새 그 인물이 돼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구인이(고창석 분) 형을 처음 언제 만났고, 형이 무슨 얘기를 했고... 시나리오에 나오지 않은 것도 상상으로 만들어 내는 거죠.”

김우빈은 “작품을 할 때 그 인물처럼 지내려고 많이 노력한다”면서 “그렇게 안 하면 저 스스로 거짓말을 하는 것 같고, 카메라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게 힘들다”고 말했다.

“지혁만의 스타일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이 상상을 많이 했죠. 금고도 진짜 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느끼려고 노력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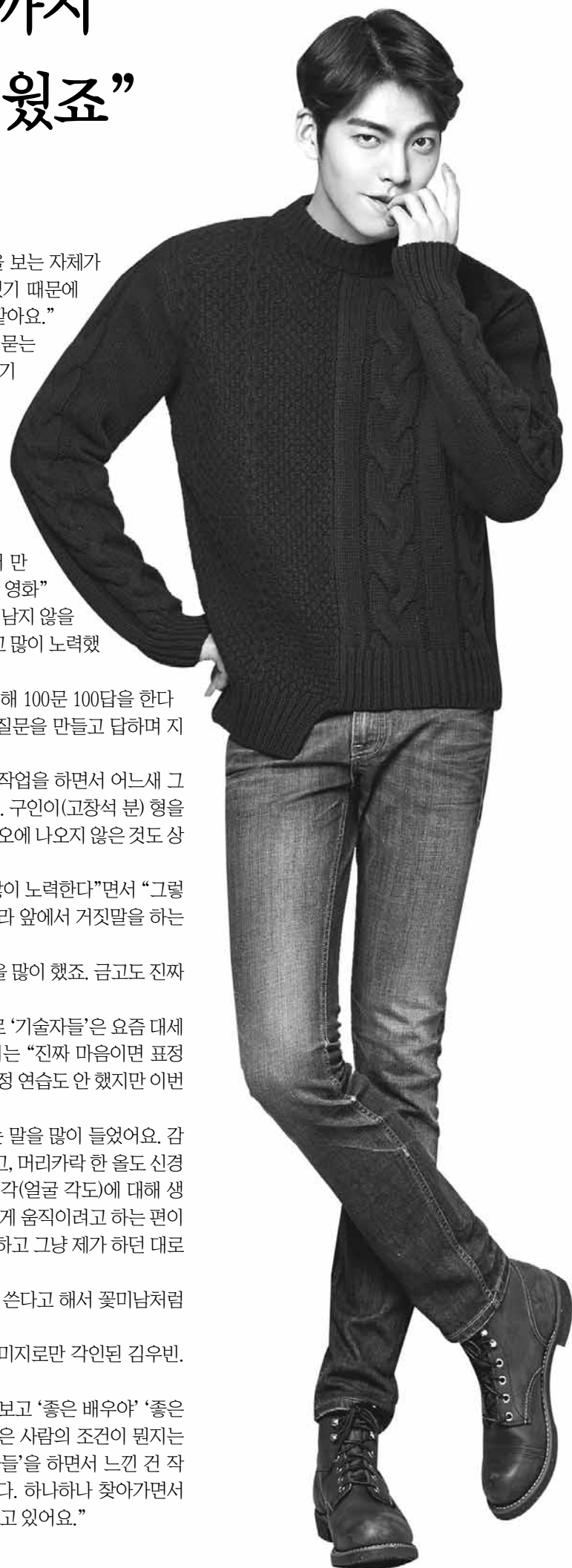
김우빈을 위한 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술자들’은 요즘 대세인 김우빈의 매력 발산에 초점을 맞췄다. 이전까지는 “진짜 마음이면 표정에 묻어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해 카메라 앞에서 표정 연습도 안 했지만 이번 영화는 조금 달랐다 한다.

“처음부터 ‘우리 영화는 스타일리시한 영화’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감독님이 ‘이게 조금 더 예쁘게 나왔지?’라고 물으시고, 머리카락 한 울도 신경 쓰셔서 저도 아무래도 신경이 쓰였어요. 처음으로 각(얼굴 각도)에 대해 생각해 봤죠. 원래 카메라 앵글 안에서 최대한 자유롭게 움직이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결국 중반부터는 포기하고 그냥 제가 하던 대로 했어요.”

김우빈은 “어차피 특이하게 생겼는데 각을 신경 쓴다고 해서 꽃미남처럼 나올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웃었다.

아직 대중에게는 반항기 넘치는 헬기 왕성한 이미지로만 각인된 김우빈. 그는 어떤 배우가 되고 싶을까.

“살을 되돌아 보는 나이가 됐을 때 남들이 저를 보고 ‘좋은 배우야’ ‘좋은 사람이야’라고 하는 걸 듣고 싶어요. 좋은 배우, 좋은 사람의 조건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찾아가고 있고요. 이번에 ‘기술자들’을 하면서 느낀 건 작품 전체를 볼 줄 아는 배우가 좋은 배우라는 겁니다.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정답은 없겠지만 (정답에) 가까워지려고 열심히 찾고 있어요.”



영화 ‘설국열차’ 美 비평가협회서 잇단 수상

피닉스 ‘SF작품상’·유타 ‘각본상’ 등

지난 6월 미국에서 개봉한 영화 ‘설국열차’가 연말을 맞아 현지 비평가협회에서 잇달아 수상하며 호평을 받고 있다.

24일 이 영화 배급사인 CJ E&M에 따르면 ‘설국열차’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애리조나주 영화평론가 어워즈 피닉스 비평가협회에서 SF작품상을 받았다. 이튿날 열린 유타 비평가협회에서는 ‘설국열차’를 집필한 봉준호 감독과 켈리 마스터슨이 각본상을, 19일 라스베이거스 비평가협회에서는 틸다 스윈튼이 여우조연상을 각각 수상했다. 앞서 지난 6월 열린 보스턴 온라인 비평가협회에서는 최고상

인 작품상과 여우조연상을 차지해 2관왕에 올랐으며, 올해 최고의 영화 10선에도 선정됐다.

북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비평가협회로 꼽히는 미국 방송 영화 비평가협회가 주최하는 ‘크리틱스 초이스’에는 SF작품상과 여우조연상, 미술상 등 3개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 시상식은 내년 1월 15일 열린다. 이밖에 미국 각종 매체에 발표된 ‘2014년 최고의 영화 10선’, ‘2014년 최고의 SF 영화 10선’ 등에 포함되기도 했다. CJ E&M 관계자는 “전 세계 많은 관객과 평단이 ‘설국열차’를 통해 한국 영화 산업의 지력을 느꼈다고 할 정도로 한국 영화사에서 의미가 큰 작품”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다문화 150만 시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KBS광주방송 ‘다문화 20년 청소년 보고서’

다문화 150만 시대, 올해 처음으로 다문화 학생수(6만7806명)가 전체 학생의 1%를 넘어섰다. 국제결혼과 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정착, 자녀의 언어문제에 대한 정책과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다. 하지만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자존감과 정체성의 혼란 속에 살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관심은 아직까지 부족하다.

KBS광주방송총국은 26일 오후 7시30분 KBS 1TV를 통해 여전히 편견 속에 살고 있는 다문화가정 청소년 자녀들의 아픔과 성장, 희망을 보여주는 보도특집 ‘다문화 20년 청소년 보고서-날고 싶은 완두콩’(기획 정병준, 취재 이성각, 촬영 박석수)를 방송한다.

방송에서는 이국적인 외모 때문에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가출과 노숙생활 그리고 연쇄방화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현준이(가명)의 고백을 통해 다문화 청소년들의 방황과 좌절을 살펴본다. 또 3년 전 한국에 들어온 중도입국한 루 페이페이의 한국생활 적응기, 부모를 잃고 삼 남매의 가정으로 꿈을 키



워기는 도담이의 성장기를 보여준다. 10년 전 특집 프로그램으로 다뤄던 한 시골마을과 다문화 가정을 다시 찾아보고 대만과 미국의 다문화 가정 지원 사례를 취재했다. ‘모어 전승 교육’을 하고 있는 대만의 공교육 시스템, 미국 교사의 다문화 연수 등 모범 사례도 소개한다. 내레이션은 영화 ‘완두콩’의 주인공인 배우 유아인씨가 맡았다. /김경민기자kki@kwangju.co.kr

EBS

05:00 World News Review	09:40 성탄절 특선 <아더크리스마스>	14:15 치료와 친구들	17:45 뽀롱뽀롱 뽀로로
05:40 만나고 싶습니다(재)	11:20 최고의 요리비결	14:30 미술탐험대	18:00 생방송 특목! 보니하니
06:10 세계의 눈	<안세경의 오감만족>	14:45 미앤마이로봇	19:00 쿤
<재난과 구조 - 제4편 토네이도>	만인을 위한 오리	15:00 꼬마 철학자 휴고	19:30 달려줘요(재)
07:00 시계마을 타기톡(재)	축축 레드벨벳 파이)	15:15 어린 왕자	20:40 다큐 오늘
07:15 곤(재)	11:4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5:30 정글북	<여름의 크리스마스 - 필리핀 민다나오>
07:30 책과 땅(재)	12:00 EBS 정오뉴스	15:45 오미와 친구들	20:50 세계대탐험
07:45 로보가 폴리(재)	12:10 연중기획	16:00 당동명 유치원	<중국어시(기행)>
08:00 당동명 유치원	<행복한 교육세상>	16:20 버블버블 마린	21:30 한국기행<관동별곡>
08:20 뽀롱뽀롱 뽀로로(재)	13:05 역사채널e	16:35 원더 볼스	21:50 다문화 고부열전
08:35 방귀대장 뽀뽀이	13:10 겨울방학생활 2학년	16:45 How-만들어 볼까요(재)	22:40 성탄절 특선영화
08:50 How-만들어 볼까요	13:30 겨울방학생활 4학년	17:00 방귀대장 뽀뽀이(재)	<심계부>
09:0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재)	13:50 겨울방학생활 6학년	17:1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	24:10 EBS 스페셜 공감
09:2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4:10 아기고릴라 동동	17:30 로보가 폴리	

EBS플러스1

00:00 2016 수능열기	12:10 2016 수능개념 <윤연주의 영어>
<유중현, 윤선명의 국어>	13:05 <윤정환의 영어>
<오광석의 수학 I>	14:00 고등예비과정 <김소연의 수학II>
01:40 <오랜지의 영어>	14:50 <주혜연의 영어>
02:30 수능길잡이<문학>	15:40 2016 수능열기 <오랜지의 영어>
<수학 I>	16:30 <유중현, 윤선명의 국어>
04:10 <미적분과 통계기본>	17:20 <오광석의 수학 I>
05:00 <영어독해 유형>	18:10 고등예비과정 <장동진의 국어>
06:40 <박근영의 미적분 I>	19:20 <최은진의 수학 I>
07:30 <차현우의 미적분 II>	20:00 <김소연의 수학II>
08:20 <구명석의 확률과 통계>	20:50 <주혜연의 영어>
09:10 <독서와 문법>	21:50 수능길잡이
10:00 고등예비과정 <장동진의 국어>	<구명석의 확률과 통계>
10:50 <최은진의 수학 I>	22:50 도전 직업채널
11:40 박복의 이슈로 만나는 경제	23:00 2016 수능개념 <주혜연의 영어>

EBS플러스2

07:00 한국어 능력 시험대비 강좌	15:40 초등4년 EBS 겨울방학생활
07:30 실험관찰 비법 노트 (5-2)	16:00 초등6년 EBS 겨울방학생활
08:00 9-7급 공무원 시험대비 강좌	16:20 K팝으로 배우는 다문화 한국어
08:30 검정고시 교육 강좌	16:50 한자교육 드라마
09:00 즐거운 수학 EBS MATH	<어린이 손자병법>
09:10 중학예비과정 <과학I>	17:20 열대제철 탐
09:50 <사회I>	17:50 스포랜드
10:30 <과학II>	18:00 중학 예비과정 <과학III>
11:10 <역사I>	18:40 <역사II>
11:50 <사회II>	19:20 과학탐정단 시드
12:30 초등 3년 겨울방학생활	19:40 사이트 백만마리의 지구뉴스
13:10 중급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20:00 EBS 인문학 특강
13:50 필독 중학 한국사(재)	20:50 EBS 기획시리즈
14:30 중학 e포스 영어 독해	21:40 EBS UCC 공모 나피디
15:20 초등2년 EBS 겨울방학생활	22:00 초급 한국어 능력 검정시험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5일(음 11월 4일 庚午)

子	36년생 취하는 이만이 입자가 될 것이다. 48년생 밤심하다가 잘못 되어질 수도 있다. 60년생 기쁜재이다. 72년생 짐지 숭고르 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 84년생 얼마나 치밀 하나니 차이가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9, 25
丑	37년생 기본적인 형식을 중시해야 한다. 49년생 주도면밀한 준비와 과감한 실행이 절실한 때이다. 61년생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후회하라. 73년생 방법이 확실해야 가능성이 높다. 85년생 넘어지는 형국이다. 행운의 숫자 : 14, 45
寅	38년생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만 후환이 없겠다. 50년생 확실하게 수용하는 편이 나올 것이다. 62년생 특별한 정보를 접하기는 하지만 철저한 검증이 뒤따라야 한다. 74년생 구체적인 필요가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07, 47
卯	39년생 중요한 사항이 언급 될 것이니 만전을 기해야 하느니라. 51년생 차분하게 생각하고 명확하게 실행해야 해결점이 보인다. 63년생 크게 활용될 때가 있으리라. 75년생 선택해야 할 기로에 선다. 행운의 숫자 : 26, 35
辰	40년생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 52년생 기회를 잃지 않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64년생 쉽게 가능할 수 있느니라. 76년생 중용적인 입장에서 타협하는 것이 가장 나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2, 16
巳	41년생 막연한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무방하다. 53년생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5년생 안정된 궤도에 오르게 될 것이니라. 77년생 알맞은 것을 찾기는 쉽지 않음을 알라. 행운의 숫자 : 17, 09

午	42년생 급한 결정은 오히려 퇴보시킨다. 54년생 결과를 낙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66년생 실제에 있어서는 예상과 전혀 다른 모습임을 인식하게 되리라. 78년생 구분을 해두어야만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3, 63
未	43년생 신념과 현실 사이에서 빼어난 갈등을 하리라. 55년생 짐책을 버려야만 새로운을 도모할 수 있음을 알라. 67년생 필연코 행운이 따르리라. 79년생 현재 상태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최상책이다. 행운의 숫자 : 74, 66
申	44년생 자제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주어질 것이다. 56년생 대범하게 넘어가는 것이 백 년 낫다. 68년생 관리를 철저하지 않으면 공허해질 것이다. 80년생 일방적이려면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31, 82
酉	45년생 전체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57년생 여건의 변화에 순발력 있게 대처하는 것이 생산적이다. 69년생 조절을 잘 해야 무리함이 없을 것이다. 81년생 가장 절실한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적절하다. 행운의 숫자 : 67, 87
戌	46년생 복이 너무 지나치면 도리어 재앙이 생기는 법이다. 58년생 균형과 절제가 필요하다. 70년생 선후를 정하지 않으면 실속 없이 분주해질 수 있다. 82년생 소강상태를 해소하고 활성화 단계에 이르리라. 행운의 숫자 : 22, 40
亥	47년생 목표점에 근접하고는 있으나 상당한 변수를 안고 있다. 59년생 악천후가 예상되니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단속을 잘 하자. 71년생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83년생 과정에 충실하면 결실을 맺는다. 행운의 숫자 : 88, 23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